

薄庭 金鑣—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박 혜 숙

- | | |
|-----------|--------|
| 1. 머리말 | 4. 마무리 |
| 2. 생애 | 연보 |
| 3. 문학적 특질 | |

1. 머리말

담정(薄庭) 김여(金鑣, 1766~1821)는 주목되는 조선후기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1) 그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조선은 중세적 체 관계가 급속히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활발히 모색되던 시기였다. 민중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는 추세에 있었고, 집권 양반 계급 내부의 권력투쟁 또한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 시대의 깨어있는 지성이라면 누구나 사대부지식인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고, 현실의 체 모순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며, 낡은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 시기의 대표적 지성으로 연암 박지원(1737~1805)과 다산 정약용(1762~1836)을 떠올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연암은 치열한 고민과 모색의 과정에서 현실인식과 지취(志趣)를 함께하는 동시대 인물들과 일종의 동연모임을 형성함으로써 '연암그룹'이라 이름할 만한 지식인연대(知識

(1) 담정 김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박준원, 「담정 김여 시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강명관, 「담정 김여 연구」, 『부산대 사대 논문집』 9집(부산대학교, 1984); 이신복, 「담정 김여 한시연구」, 『동양학』 18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 박혜숙, 「사유악부연구」, 『고전문학연구』 6집(한국고전문학회, 1991).

이 글은 줄고 「사유악부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입론을 펼친 것임을 밝혀둔다.

人連帶)를 보여준 바 있다.

연암과 다산이 그들의 실학사상에 입각하여 '실학파문학'을 성립시켰다면, 실학파문학과 같은 도저한 사상성은 없으나 나름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보여준 일단의 문인그룹이 있었던바, 그들을 '담정그룹'이라 부를 수 있다. 담정그룹의 가장 주요한 인물로는 담정 김여와 문무자(文無子) 이옥(李鈺, 1760~1813)이 있다.⁽²⁾

연암과 다산이 합리적 이성애 입각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당대모순에 대응하는 논리를 체계화해 나간 데 비해, 담정그룹은 중세적 감수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감수성의 세계를 구축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중세사회의 해체라는 역사의 대전환을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성과 직관에 의해 포착하였던바, 특히 담정 김여의 경우 그의 감수성은 다만 감수성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및 여성과 하층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중세적 신분차별을 넘어선 평등의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요컨대, 담정의 탁월한 시인적 감수성은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어 담정그룹이 도달한 최고의 높이를 보여준다. 담정은 자신의 새로운 인식을 체계적 사상으로 논리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인적 감수성으로 근대적 평등의식을 '선취(先取)' 함으로써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예감한 점에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담정의 빼어난 감수성은 생래적(生來的)인 것만은 아니었다. 10여년에 걸친 유배생활을 통해 담정의 감수성은 단련되고 민중적 지향을 뚜렷이하게 되었으며, 개인적 영역을 넘어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담정의 생애 및 그 문학세계의 특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외에 담정그룹에 속하는 인물들로는 이우신, 이안중, 김선신, 권상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과 담정과의 관계는 후술된다. 이옥에 대한 연구로는 김군태,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가 참조되며, 담정그룹 문인들에 대한 연구로는 박준원, 「담정총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가 참조된다.

2. 생애

가계 김여의 자(字)는 사정(士精),⁽³⁾ 호는 담정·해고(海臯)·귀현자(歸玄子) 등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그의 집안은 7대조 김제남(金悌男)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생부였던바, 애초에는 노론 명망가의 집안이었으나 차츰 가세(家勢)가 기울었다. 증조부가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연루되는 바람에 거의 몰락의 위기에 이르렀다가, 담정의 아버지 대(代)에 이르러 가세는 다소 호전되고 집안의 경제사정도 안정되었다. 담정의 아버지 김재칠(金載七)은 용담(龍潭)과 장수(長水)의 현감을 지냈다. 그는 선진·양한(先秦兩漢)의 고문(古文)을 좋아하고 역대 명사들의 서화를 수집하는 등 문예적 소양이 남달랐으며, 자식에 대한 교육 또한 엄격했다고 한다.

담정의 가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담정 당대의 지체가 노론별열층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었던바, 이 때문에 보수적 이념의 구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다른 하나는 담정의 집안이 노론 중에서도 시파(時派)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문의 내력은 시파와 벽파(僻派) 사이의 권력투쟁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던 정조(正祖) 재위연간에 청년시절을 보낸 담정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년시절(1780~1797) 담정은 15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27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유배 이전까지 성균관에 출입하였다. 이 시기에 담정과 교유한 인물로는 이안중(李安中), 이우신(李友信), 이노원(李魯元), 김조순(金祖淳), 이옥, 권상신(權常愼), 김선신(金善臣) 등이 있다. 후일 담정이 이들의 주요작품을 『담정총서』로 집성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담정은 이들과 깊은 친분을 쌓으며 정신적·문학적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안중, 이우신, 이노원 등은 옥대체(玉臺體)⁽⁴⁾라고 불리는 여성취향의

(3) 『조야시선(朝野詩選)』(아세아문화사 영인본, 61면)에는 김여의 자(字)를 홍예(鴻豫)라 하였다.

(4) 옥대체 혹은 향림옥대체(香畹玉臺體)는 한시 중에서도 여성적 정조가 현저한 시

시를 애호했으며, 『이소경(離騷經)』이나 「애강남(哀江南)」 등 낭만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중국 남방계통의 작품에 심취했다. 이들과 교류하면서 담정도 여성적·낭만적 취향의 문학에 경도되었다. 담정그룹의 이러한 지향은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중심적인 중세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려는 단초로서 의의가 있다.

김조순·이옥 등은 담정과 더불어 패사소품(稗史小品) 문학을 애호하였다. 김조순은 담정의 평생 지기(知己)로서 소품취향을 일찍부터 공유하였으며, 1792년에는 「우초속지(虞初續志)」⁽⁵⁾를 함께 편찬하기도 했다. 애초에 「우초속지」에 수록된 작품은 50여 편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 담정 작품의 일부가 「단량패사(丹良稗史)」에 남아 있다.⁽⁶⁾ 여기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전(傳)이 수록되어 있다. 이옥은 그의 문체가 패사소품체라는 이유로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당하고 끝내는 유배에 처해지는 불우한 삶을 살았던 바, 담정은 이옥의 문학을 열렬히 옹호하면서 소품문학에 대한 보수적 문인들의 공격에 맞섰던 것으로 보인다.⁽⁷⁾ 패사소품체란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적 정치질서를 지탱하는 ‘성경현전(聖經賢傳)’의 사상 및 문체에서 벗어나 현실의 다양한 면모와 각양각색의 인물군상을 생동하게 담은 문장을 지칭한다. 담정의 소품적 문학에 대한 옹호는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시기의 문체 문제는 문학적 노선의 문제를 넘어 미묘한 정치적 알력과 연관을 맺고 있다. 담정과 주변인물들의 문체는 거듭 정치적 현안으로 문제

를 가리킨다. 중국 남조(南朝)의 진(陳)나라 서릉(徐陵)이 편찬한 『옥대신영(玉臺新詠)』에 이러한 시가 많이 실린 데서 유래하는 명칭으로, 섬염(纖艷)한 미의식을 특징으로 한다.

- (5) 「우초속지」라는 제목에는 중국의 「우초지(虞初志)」 「우초신지(虞初新志)」의 문학적 입장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초지」나 「우초신지」는 모두 전기문학(傳奇文學) 선집이다.
- (6) 「우초속지」의 일부 작품이 「고향옥소사」 및 「단량패사」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담정의 「제고향옥소사권후(題古香屋小史卷後)」 및 「제단량패사권후(題丹良稗史卷後)」를 통해 알 수 있다.
- (7) 『담정총서』 중 이옥의 작품들 뒤에 붙인 ‘제후(題後)’에서 담정은 이옥의 문학을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 이 글들은 담정의 만년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시절의 문학적 입장 또한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되었고, 서학(西學) 문제와 결부되면서 노론 벽파계 인물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8) 1797년, 담정은 결국 강이천(姜彝天)의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로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함께 연루된 인물은 김건순(金健淳), 김이백(金履伯), 강이천 등이었는데 이들의 죄상이란 함께 어울려 서학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서해의 어떤 섬에 진인(眞人)이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것이었다. 서학에 대한 관심이 이단시되었고, 진인에 대한 이야기는 반체제적인 시도와 결부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였으나, 이런 유의 혐의는 봉건권력층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빌미거리로 종종 이용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뚜렷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강이천·김이백·김여만 유배를 당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유배지에서(1797~1806) 담정은 북방의 부령(富嶺) 및 남쪽의 진해에서 32세부터 41세까지 10여 년에 걸친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 동안 담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실제생활을 관찰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부령에서는 한 여성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곳의 토착민들과 우정을 나누었고, 근로하며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중세적 질곡 하에서의 여성의 운명이라든가 북방의 거친 자연과 싸우고 지배층의 수탈과 싸우는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척박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진실된 인간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1801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대반동의 개막을 알리는 신유사옥(辛酉邪獄)이 일어나, 김여 등은 다시 유배지에서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 이 신유사옥에서 남인 및 노론 시파의 핵심인물들이 노론 벽파에 의해 제거되는데, 김건순·강이천·김이백은 사형을 당하고 김여는 다시 진해로 유배되었다. (9)

중세적 신분사회에서 사대부 지식인의 유배란 기존의 정치판도에서의 배

(8) 『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 11월 11일~20일 및 『추안급국안(推案及鞠案)』 247·248책(아세아문화사 영인본 권25) 참조.

(9) 『조선왕조실록』, 순조 원년 2월 16일~4월 20일.

제를 의미하고 따라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좌절이랄 수 있지만, 한편으론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되고 경화(硬化)된 현실인식의 틀 내지는 가치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유배지에서의 체험을 통해 민중생활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배층과 지배질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획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부령 및 진해에서의 10여 년에 걸친 유배체험은 담정으로 하여금 민간세계를 그저 '바라보는' 차원에서 인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당대의 민중을 추상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피와 살을 갖춘 구체적 인간으로 이해하면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경지에 까지 나아가게 하였다.

이 시기에 담정 문학의 정수라고 할 「사유악부(思牖樂府)」가 창작되었다. 「사유악부」는 290수의 연작을 통해 조선후기 변방민중의 생활현실을 폭넓고도 깊이있게 그려내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최대의 악부서사시인 「장원경 처 심씨를 위해 지은 시」⁽¹⁰⁾ 또한 담정의 유배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¹¹⁾ 신분제적 편견을 넘어서 만민평등의식을 보여주는 탁월한 작품이다. 그 외, 자신의 처참했던 유배행로를 기록한 「감담일기(坎窩日記)」, 진해의 연안 어족(魚族)에 대한 관찰기록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등이 있다.

해배(解配) 이후(1806~1821) 1806년, 담정의 유배생활은 끝났다. 그동안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여 논밭과 가옥은 모두 남의 소유가 되고, 다만 초가집 한 채만 남아 있었으며, 자신과 동료들의 수많은 작품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담정은 손수 김을 매고 밭을 갈 정도의 가난에 시달리다가, 1812년부터 벼슬길에 나아갔다. 1817년에서 1819년까지는 연산(連山) 현감을 지냈으며, 1821년 9월 함양군수로 재직하던 중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

(10)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이다.

(11)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엄밀히 확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 작품 중에 바닷가 생활 및 어민들의 삶이 너무나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 어민들이 겪는 부역의 가혹함을 토로하고 있는 점,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식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진해에서의 유배생활 중이나 늦어도 그 직후에 창작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났다.

이 시기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보수반동의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바, 유배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난 담정은 민중생활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담정도 이미 중·노년에 접어들어 별다른 외적 자극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젊은 시절의 예민한 감성과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웠다. 연산현감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작품을 보면, 백성의 삶에 대해 동정과 근심을 늘 견지하며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나마 호강(豪強)을 억누르고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¹²⁾ 그러나 존재기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유배시절의 작품에서와 같은 시적 긴장이나 민중과의 일체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해배 이후 담정의 주요 작품으로는 자신의 가난과 농사일의 경험이 반영된 「만선와잉고(萬蟬窩膾羹)」, 연산현감 시절의 견문과 심경을 노래한 「황성이곡(黃城俚曲)」 204수, 정월 대보름의 풍속을 노래한 「상원이곡(上元俚曲)」 25수 등이 있다. 한편 이 시기 담정은 『담정총서』 17책 34권을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자신과 주변인물들의 문학작품을 후세에 전하고, 그 문학적 입장을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다. 각 권의 말미에 붙인 담정의 글에서 그의 문학관과 동료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총서는 담정그룹의 문학세계를 알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며, 특히 이옥의 독특한 문학세계가 이 총서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담정이 이 시기에 몰두한 또하나의 작업은 야사집(野史集) 편찬이었다. 담정은 유배 이전에도 『창가루외사(倉可樓外史)』라는 야사집을 편찬한 바 있는데,⁽¹³⁾ 이 시기에 『한고관외사(寒臯觀外史)』·『광사(廣史)』라는 이름 하에 과거의 잡록·야사를 대규모로 집성하였다.⁽¹⁴⁾ 담정의 개인

(12) 연산현감 시절에 창작된 「황성이곡」 제5, 7, 13, 15, 33, 40, 57, 70, 84, 111, 134, 147수 등에서 백성에 대한 담정의 관심과 연민을 볼 수 있다.

(13) 『창가루외사』가 유배 이전에 편찬된 것임은 「사유악부」 제92수에서 알 수 있다.

(14) 『한고관외사』·『창가루외사』에 수록된 각 잡록·야사의 말미에 붙인 담정의 '제후(題後)'가 『담정유고』에 수록되어 있어 참조가 된다. 「제간옹우묵권후(題良翁疣墨卷後)」를 보면 「한고관외사」가 주로 유배 이후 시기에 편찬되었음을

적 처지와 당대의 역사상황이 그로 하여금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야사를 통해 과거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더욱 전념케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문학적 특질

새로운 감수성과 새로운 글쓰기 담정의 작품을 통독해 보면 그의 탁월하고도 풍부한 감수성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풍부한 감수성이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시인에게 필수적인 것이겠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역사의 변화에 따라 또 시인의 존재 기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담정은 중세적·사대부적 감수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수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시절 담정의 문학은 자유분방함과 감정의 해방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유분방함과 감정의 해방은 담정그룹 문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담정의 경우, 유배체험을 거치면서 그의 감수성은 민중적 지향을 뚜렷이하게 되었고, 시대를 '선취' 하는 문제적 면모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담정의 새로운 감수성은 감정해방으로부터 탈중심적·평등의 감수성으로 정향(定向)지워지면서 새로운 글쓰기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담정의 시세계는 자연스럽고 진실된 감정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며, 나아가 격렬한 감정의 분출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감정의 격렬한 분출은 「사유악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작품의 도처에서 담정은 사랑·기쁨·슬픔·분노 등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에 대한 애정 표현 역시 아주 대담하며, “눈물이 넘쳐흘러 내 뺨을 적시네”, “가을들판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네”, “눈이 빠지고 애가 끊어져 까무라칠 듯했네” 등, (15)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했다는 표현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고 있다. 한편, 주변인물에 대해서 너무도 선명한 애정·증오·칭찬·비판

집작할 수 있다. 『광사』는 모두 200책 472권 143종의 야사를 수록하여 조선시대 야사총서 중 가장 방대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1923년 동경대지진 때 대부분 불타 버리고 현재 20책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김근수, 『야사총서의 총체적 연구』(한국학자료총서 10집,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76) 참조.

(15) “淚流滂沱滿我頰”(「사유악부」 제120수), “痛哭秋原淚潏潏”(제228수), “眼穿腸斷魂欲死”(제153수).

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자신과 우의가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민중적 인물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과 이해를, 부패한 권력자나 그 주구(走狗)들에 대해서는 격렬한 증오를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는 점은 우리 한시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이다. 이는 온유둔후(溫柔敦厚)와 절제 및 조화를 추구하는 중세적 미의식에서 사뭇 벗어난 것이다.

담정의 감수성이 현저히 탈중심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담정의 관심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를 향하고 있다. 주변적 인물에 대한 담정의 관심은 청년시절부터도 다소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유배체험을 통해서 더욱 진지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전화되었다. 중세의 사대부시인으로서 하층민·변방민·여성 등을 주인공으로 한 시편들을 담정만큼 많이 창작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담정은 하층민·변방민·여성 등 다양한 주변적 삶을 깊이있게 관찰하고, 그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애의 감정을 그들에게 표시하고 있다. 담정은 하층민이나 여성을 지배층 및 남성의 타자(他者)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그 가치를 적극 평가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주변적 삶을 대거 한시의 제재로 채택하고 그 가치를 적극 인정한 데서 담정의 '탈중심적 감수성'을 뚜렷이 감지(感知)할 수 있다.

담정의 감수성은 중세적 권위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등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세적 감수성이 군자/소인, 남성/여성, 인간/미물 등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해, 담정은 '평등의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담정은 부령의 무관, 아전, 상인, 농민, 기생, 아이, 이웃집 할미 등과 신분이나 성(性)을 넘어선 우정을 나누고, 진해의 어부들과 너나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기도 했다. 하층민이나 여성과 관련된 술한 묘사나 시적 표현을 통해 그들을 자신과 똑같이 동등한 인간으로 느끼는 담정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그의 감수성은 하찮은 동물이나 사물에까지 미치고 있다. 담정은 부령의 셋집에 해마다 찾아오는 제비, 자기가 기르던 개나 닭, 이웃사람이 기르던 매, 뜰의 나무에 등지친 까치, 우물가의 앵도나무 등(16)에 대해서까지 애뜻한 사랑의 감정을 표

(16) 「사유악부」 제8. 13. 15. 16. 37. 628수 등 참조.

하고 있다. 예컨대, 까마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만류한다든지, 구렁이에게 어미를 잃은 새끼까치를 가엾게 여기는 시에서 그런 점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며, (17) 고기잡이·사냥 등의 인간활동이 다른 생명에게는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인간의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18)

담정의 이러한 탈중심적·평등의 감수성은 새로운 글쓰기로 이어지고 있다. 유배시절 그가 변방민 및 하층여성들을 제재로 창작한 술한 시와 전(傳)들은 중세 문학의 '권위적' 글쓰기로부터의 벗어남을 보여준다. 담정의 작품에서 권위적 목소리나 시선 같은 것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작품에서 민중이나 여성은 피사체(被寫體)가 아니라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연희라는 미천한 기생의 언행을 기록한 「연희언행록(蓮姬言行錄)」이라든가, 해마다 자기집에 찾아오는 제비를 주인공으로 한 「백두연전(白頭燕傳)」을 쓰기까지 하였다. '언행록'이란 도학자나 위인, 존귀한 인물의 언행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그 제자나 자손이 기록하는 글쓰기 양식이며, '전'은 특이한 행적을 남긴 인물을 역사에 길이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이다. 그런 언행록과 전을 하층여성과 미물을 위해 창작했다는 사실을 통해 담정의 글쓰기가 얼마나 새로운 것이며, 중세문학의 권위를 탈피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담정이 변방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290수나 되는 연작악부시 형식을 고안한 것이라든지,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하기 위해 704구에 이르는 장편의 한문서사시를 창작한 것 또한 세계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식(=감수성)의 새로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담정이 본 당대현실과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부패한 지배권력에 대한 인식 담정은 「사유악부」의 도처에서 부패한 지배권력에 대해 비판과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관리의 가렴주구를 고발하고

(17) 「사유악부」 제162, 62수 참조.

(18) “재앙은 포희씨에서 시작되어/헌원씨에 이르러 가장 심했네/고기잡이, 사냥방법 가르친 것이/도리어 생명에 해가 되었네/하늘이 내린 생명 마구 죽이니/사람의 욕망이 지나치지 않은가”(「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 제685-690구)

백성들을 옹호한 애민시(愛民詩)류의 한시는 다산 정약용을 위시하여 조선 시대의 여러 진보적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바 있다. 하지만 담정처럼 폭발적인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그의 작품에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무렵의 한 북방 고을의 권력관계가 극히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 있어 흥미롭기 그지없다. 담정이 특정 사건 및 그와 연루된 관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공격하고 있는 점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담정은 「사유악부」에서 특정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통해 탐관오리의 전형을 창조하고 있는바, 그들은 함경도 관찰사 이병정(李秉鼎)과 부령 도호부사 유상량(柳相亮)이다.

관찰사 이병정은 명천·길성·경성·부령에서 매년 바치는 어물(魚物)의 겨울 진상을 순조(純祖)가 그만두게 했는데도, 이 사실을 감춘 채 계속 겨울 진공(進貢)을 거두어들였으며,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 나라에 바쳤다고 둘러대며 어민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다(「사유악부」 제127수(19)). 이병정은 또 염리(鹽利)를 지나치게 탐해 염호(鹽戶)를 닥달했고 염호들은 이를 견디지 못해 모두 달아남으로써 소금값이 폭등하였다(제133수). 이병정은 백성에 대해 가렴주구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담정과 같은 유배객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데에도 흑독했다.(20) 그는 담정이 지은 시를 가지고 죄상을 날조했으며(제202수), 담정의 문하생을 문초하였고(제254수), 새로 부임한 도호부사 이갑희를 사주하여 담정의 문도 60여명을 체포·심문하고(제152수), 담정과 친분이 있던 100여명의 인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으며(제211수), 유배온 사람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한 관리를 무고하여 파직시켰다(제88수).

도호부사 유상량의 수탈적 면모는 더욱 살살이 그려지고 있는바, 그는 차

(19) 이하 본문에서 「사유악부」에 수록된 시를 거론할 경우에는 ‘제○○수’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20) 이병정은 일찍이 왕명(王命)에 따라 소품취향을 지닌 강이천 등의 성균관 유생에게 경전문자(經典文字)를 가르친 적이 있던 인물로 (『조선왕조실록』, 정조 21년 11월 11일 條), 담정과도 반대 당파였다. 이병정의 담정에 대한 흑독한 대접과 그에 대한 담정의 격렬한 비판에는 개인적 감정과 관련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

유령 아래 은점(銀店)을 설치하여 횡렴(橫斂)을 일삼음으로써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가 하면(제72수), 거짓으로 내수사(內需司)의 소용(所用)을 칭탁하여 황장목(黃腸木) 천 여 그루를 베어 사복(私腹)을 채우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시를 한 편 보기로 한다.

무얼 생각하나?	問汝何所思
저 북쪽 바닷가.	所思北海湄
부령의 육씨(陸氏) 여자	富春兒女身姓陸
밤마다 강가에서 하늘보며 울부짖네	夜夜叫天臨江哭
그 남편 지난 가을 황장목을 운반하다	夫婿前秋運黃腸
홍원(洪原)에서 파선(破船)하여 목숨 잃었지	船破滄死洪原洋
사또는 도망하다 자초한 화라 덮어씌우며	本官猶言在逃禍
부모님 잡아다 열 달 동안 고문했네	十朔拷掠爺與孃
들으니, 내수사에선 황장목 요구 않았다는데	傳聞內需無公務
본관사또 교명(矯命)으로 사복 채우려 한 일일세	本官矯旨私營度
하늘이여, 하늘이여, 아는가 모르는가?	天乎天乎知道否
어찌해 유도호(柳都護)를 벼락쳐 죽이지 않나.	那不震殺柳都護 (제70수)

당시 부령의 백성들은 유상량을 “황장목 나오리”라고 비꼬아 부를 정도로 그에 대해 큰 반감을 품고 있었다. 이 시는 육씨 부인과 부령민의 유상량에 대한 저주를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격렬하고 직설적인 저주는 기존의 한시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담정은 자기와 부령민을 일체화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부령민의 입장에 설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기존 한시의 태두리를 벗어 나는 표현과 정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담정은 이외에도 탐관오리로서의 유상량의 모습을 여러 편의 시 속에 담고 있다. 그는 김조이라는 여인의 음행을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가 하면(제76수), 남씨네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그 시아비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사실을 은폐하였으며(제86수), 꺾씨 처녀가 납치되어 갔는데도 자신이 납치범의 누이를 총애하는 터라 이 일을 묻어두고 다스리지 않았다(제132수). 관아에 불이 났을 때는 남 먼저 달아났으며(제116수), 일식·지진의 천재지변이 있으나도 목민관으로서 근신하는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연회를 베풀고 거리낌없이 놀았다(제266수). 이병정·유상량 외에도 하급관

리·포졸·토호 등의 부정과 부패, 발호를 담정은 남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21)

담정은 민중들의 고통과 분한(憤恨)을 시로 표현함에 있어 그저 막연하게 동정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민중의 고난의 직접적 원인이며 그 대립물인 부패한 지배권력에 대한 증오를 한시(漢詩)의 일반적 전례를 벗어나 놀라울 정도로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다. 심지어는 “죽일 놈”, “개 같은 김가놈”, “살쟁이 같은 이가놈” 등의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22) 관찰사 이병정을 한(漢)나라의 가혹한 관리 상홍양(桑弘羊)에 비유하면서 “홍양(弘羊)을 찌죽이지 않으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리니” (23)와 같은 극단적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담정은 유배지에서 권력자의 탐학과 백성에 대한 수탈을 직접 보고 겪는 한편, 민중과의 사귀를 통해 그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중적 입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일반한시의 전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게다가 담정의 성격적 특징인 다정다감함은 민중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면서, 민중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으리라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담정은 정의를 옹호하고 불의에 항거하려는 용기와 기백을 지닌 시인이었다. 담정의 시인적 열정과 용기, 민중의 현실을 시혜자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흡사 시인 스스로가 그 일원(一員)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은 눈여겨 보아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담정이 부패한 봉건권력을 격렬히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이 봉건지배체제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담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해결책은 양심적 관료에 의해 베풀어지는 선정(善政)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인다. (24) 또한 그의 현실비판이 아주 구체성을 띠고 있음은 미덕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의 문제가 특정인물의 인격이나 행위에 고착됨을 넘어서서 봉건체제의 내적 기제(機制)나 보편적 모순을 드러내보

(21) 「사유악부」 제67, 215수.

(22) “저 죽일 놈의 留鑣 최창규(可殺玉蓮崔留鑣)”, “개 같은 김가놈, 살쟁이 같은 이가놈 함께 날뛰고(金狗李猫共跳梁)” (「사유악부」 제215수).

(23) “弘羊不烹天不雨” (「사유악부」 제69수).

(24) 이러한 사실은 「사유악부」 제18, 144, 180수 및 「황성이곡」의 제 199수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인식 담정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시와 전(傳)을 조선시대 작가 중에서도 특히 많이 창작하였다. 그 중 상당부분이 전하지 않아 안타깝긴 하지만, (25) 남아있는 작품만으로도 담정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진지하고 남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담정의 문학에서 여성인물이나 여성의 삶이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지적했듯 담정은 일찍이 여성취향의 옥대체 문학 및 낭만적 성격의 「이소경」 같은 작품에 심취한 적이 있었다. 조선중기의 임제(林悌) 같은 시인이 옥대체 시를 상당수 창작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옥대체 문학은 그 여성적·정감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중세적 예교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문인들에 의해 추구되었다. 하지만 옥대체는 여성의 실제현실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성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여성들의 현실을 정조(情調)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담정은 나중에 옥대체 문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담정문학의 여성적·정감적 성격은 옥대체 문학의 영향에 말미암은 바 없지 않으나, 옥대체와는 그 미학적 성격과 역사성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옥대체가 중세적 언어라면, 담정의 작품은 '주변인'에 대한 그의 애정 및 인간관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여성에 대한 봉건적 통념을 벗어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6)

담정의 작품에는 술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빼어나게 형상화된 인물은 '연희(蓮姬)'라는 여성이다. 「사유악부」의 전편에 걸쳐 연희와 관련된 회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연희는 부령의

(25) 담정의 작품은 그가 옥사(獄事)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많이 일실(佚失)되었다. 진해 유배시절 이후의 작품은 대체로 『담정유고』를 통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 이전의 작품은 상당부분이 전하지 않는다. 「사유악부」를 통해 일실된 작품들의 제목을 알 수 있다.

(26) 고시(古詩)를 중시한 담정그룹의 문학적 입장도 그들이 여성현실을 시적 소재로 삼는 데에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근체시의 격식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시를 추구한 시인들 중에는 여성의 삶을 소재로 한 시를 다수 창작한 경우가 발견된다. 김만중(金萬重)이나 최성대(崔成大) 같은 시인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담정그룹은 고시에 대한 선배들의 주목을 계승하면서 여성현실에 대한 시적 관심도 계승한 측면이 있다.

기생이었다. 담정이 유배지에서 부사나 아전들로부터 감시와 심한 모멸을 받을 때, 연희는 담정과 내왕을 하며 그의 말벗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손수 길쌈을 하고 철따라 의복을 지어주며 그 부모의 기일(忌日)에 직접 제상(祭床)을 차려줄 정도로 지성으로 담정을 위하였다. 연희는 비록 북변의 미천한 기생 출신이라고는 하나 문장과 그림 등 문예적 재능이 뛰어나고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뚜렷한 안목을 지닌 여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담정은 시에서 연희의 모습은 선녀와 같고(제2수), 그의 문장은 중국의 탁문군(卓文君)이나 왕소군(王昭君)보다 뛰어나 장백산 정기가 길러낸 인물인데, 어찌서 이러한 사람이 변방에 묻혀 있는지 묻고 있으며(제12수), 그녀로부터 받은 따뜻한 보살핌과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한시도 잊지 못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제271수). 담정은 많은 시편에서 연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숨김없이 그려내면서 그것을 다양한 빛깔과 음색으로 변주하고 있다.

무얼 생각하나?

저 북쪽 바닷가.

연못에 붉은 연꽃 천만 송이 피었는데

연희가 그리워 보고 또 본다네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사랑 또한 같아서

한 줄기에 난 두 송이 연꽃 부럽지 않았거늘

사랑하던 사람이 원망스런 사람 되고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 되었구나

하늘끝 땅끝에 산과 강 막혀 있어

허공 중에 그리운 노래 죽도록 불러보네

전생에 무슨 죄 지어 이런 고통 겪는건지

연희야 연희야 어찌란 말이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塘裏蓮花紅萬礫

蓮姬之故亦愛爾

同情同意又同憐

豈美人間并蒂蓮

百年歡家變冤家

好因緣成惡因緣

地角天涯隔山河

畢身空唱離恨歌

前生罪過他生戾

蓮兮蓮兮奈若何 (제289수)

남쪽의 진해에서 북쪽의 연희를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담정의 연희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는 이루 다 예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연희와 관련된 어떤 물건을 보면 또 그에 촉발되어, 담정은 연희의 인간됨됨이, 연희와 놀던 일, 연희와 서로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희의

은혜를 갚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기도 하고(제234수), 연회를 자신의 들도 없는 벗 김조순 못지않은 '지기(知己)'로 여기기도 하였다(제153수).

담정은 감정이 풍부한 시인이었지만 특히 연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리움이든 떠오르는 대로 거리낌없이 토로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으로서 남녀간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그 진실한 추구에 더없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²⁷⁾ 여성에 대한 진지한 애정은 여성을 단지 남성의 성적 대상이나 남성의 타자(他者)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적 인간으로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바, 담정의 연회에 대한 애정에서 그런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사유악부」에서 연회와 관련된 시편들은 우리문학사에서 특정 여성을 향한 연시(戀詩)의 높은 성취를 보여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담정은 연회의 출중한 면모와 평소의 언행을 전하고자 「연회언행록」이라는 글을 짓기까지 했다. 한갓 미천한 기생의 언행을 '언행록'으로까지 기록한 것은 담정의 새로운 글쓰기 감각에서 유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담정이 성적(性的)·신분적 차이를 뛰어넘어 '연회'라는 한 여성을 진정한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흔히 조선후기 한시사에서 남녀의 애정을 형상화한 대표적 작품으로 이옥의 「이언(俚諺)」을 꼽기도 하지만, 「이언」은 다분히 풍속적 관점에 입각한 세대묘사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담정의 애정시가 보여주는 여성에 대한 평등한 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담정은 한 여성에 대한 진실한 애정을 통해 봉건시대 여성의 비참한 운명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담정은 연회의 벗인 영산옥의 쓰라린 운명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무얼 생각하나?

問汝何所思

(27) 문학에서 '정(情)'의 중요성 및 남녀간의 애정이 차지하는 본질적 의의에 대한 인식은 허균과 김만중에게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담정은 문학사의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허균과 김만중을 비롯해 담정 이전의 어떤 시인도 담정처럼 여성을 독립적·주체적 존재로 표현한 경우는 없었다. 담정이 보여주는 여성인식과 여성인물의 시적 형상화가 지니는 역사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 북쪽 바닷가.	所思北海湄
영산옥은 평생 한이 뼈에 사무쳐	玉嫂平生恨徹骨
매일 밤 울음 삼키며 눈물 흘리네.	每夜吞聲淚不歇
“어찌하여 하늘은 기박한 이 몸 낼 제	如何天賦薄命人
총명한 남자 만들지 않고 여자되게 하였나	不作聰明男子身
노류장화 이내 팔자 모질기도 모질어라	牆花路柳八字惡
씀바귀 쓰다 하나 내 신세 비하면 오히려 다네	誰謂茶苦甘如蓴
절통하다 저 인간 유가(柳家)네 자식	切痛人間柳氏子
삼생(三生)의 원수가 네 아니고 누구리”	三生冤讐寧非爾
적막한 규방 깊은 곳에서	寂寞芳閨深掩處
푸른 저고리 다홍치마 원한 속에 늙어가네.	怨綠愁紅空沒齒 (제285수)

영산옥은 부기(府妓)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수절하려고 했다. 이에 도호부사 유상량이 그녀를 붙잡아와 벌하려 하였다. 그러자 담정은 영산옥을 입전(立傳)한 「정안전(貞雁傳)」을 창작하여 그녀를 기리고 유상량을 비난하였다(제106수).⁽²⁸⁾ 담정은 위의 시에 덧붙인 주(注)에서 “영산옥은 자나깨나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이 여겼는데, 「방가행(放歌行)」이라는 시 한 수를 지어 그러한 뜻을 노래했다. 그 시를 보는 사람들은 슬피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에서 담정은 아름답고 재주 또한 출중한 젊은 여성이 봉건적 현실의 벽에 부딪쳐 자신이 주체적으로 택한 삶을 좌절당한 채 원망과 탄식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 무한한 연민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담정이 봉건시대 여성의 운명을 깊이 이해하고 그 처지를 동정한 데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정은 연희나 영산옥 등에 관해 많은 시를 짓고, 「연희언행록」·「정안전」을 썼을 뿐 아니라, 자기 주변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고상한 인격·빼어난 의기 등을 알아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글을 지었다. 애석하게도 현전하지는 않지만, 「심홍소전(沁紅小傳)」, 「정설염전(鄭雪艷傳)」, 「우아전(禹娥傳)」, 「경선전(京仙傳)」, 「유인최씨묘지명(孺人崔氏墓志銘)」, 「최정부시오십운(崔貞婦詩五十韻)」, 「장애애시(張愛愛詩)」, 「소혜랑

(28) 담정이 「정안전」을 쓴 것이 빌미가 되어 유상량은 ‘김종원(金鍾遠) 옥사’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담정과 가깝게 지내던 부령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유악부」 제106, 107, 141수 참조.

소전(蘇蕙娘小傳) 등은 모두 미천한 신분의 여성이 지닌 높은 덕성과 재능을 기리기 위해 씌어진 글들이다. 이 외에도 담정은 이씨라는 술집 주모(酒母)를 애도하는 시 10수를 짓기도 했다.⁽²⁹⁾ 이들은 모두 실존인물들이었다. 한편, 「장원경 처 심씨를 위해 지은 시」에서는 조선시대의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백정의 딸 '심방주'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녀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듯 담정이 수많은 여성들을 위한 시와 전(傳) 등을 창작한 것은 봉건시대 하층여성의 처지에 대해 깊이 동정하고 성적·신분적 차이를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담정이 자각적·선언적 형태로 여성에 대한 평등의식을 표한 적은 없지만, 그가 중세 사대부지식인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훌쩍 뛰어넘고 있음은 의심할 바 없다. 담정문학이 보여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나라 한시사에서 대서특필되어야 할 드물고도 소중한 것이다.

민중적 인물에 대한 애정 담정문학의 또다른 주요한 면모는 술한 민중적 인물의 형상화와 그러한 인물에 대한 담정의 애정이다. 「사유악부」 및 몇몇 전(傳)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담정은 유배를 가서 점차 그곳의 주민들과 사귀게 되고, 그들의 따뜻한 인정에 힘입어 유배생활의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곳 주민과의 접촉과 교류는 대단히 폭넓게 이루어졌는바, 한미한 양반이나 아전, 하급무관으로부터 농사꾼, 상인, 공장(工匠), 술집주인, 청년과 어린이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변방의 토착민들로서 민중층의 일원이거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민중적 성향을 갖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담정은 이들로부터 많은 후의를 입었다. 그는 이들에게서 따뜻하고 소박한 인간미, 훌륭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무얼 생각하나?
저 북쪽 바닷가.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29) 이 시의 제목은 「애이주구십수(哀李酒媪十首)」로서 『담정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생각나네 지난 겨울 만 길이나 눈이 쌓여	却憶前冬萬丈雪
온 고을 다 묻히고 용마루 부서졌지.	埋盡城中屋瓦截
새벽에 문 밀치자 꿈쩍도 하지 않아	曉起排戶戶不開
눈이 아찔 기가 막혀 서글픈 마음 뿐이었네	眼 矜魂悸翻成哀
그새 길 뚫었는지 설령줄 소리 들리더니	忽聞鈴索通雪寶
국보(國甫)가 손수 술병 들고 찾아왔네	國輔親携白醜來
담수(澹叟)와 전옹(田翁)도 차례로 이르러	澹叟田翁次第至
칼을 꺼내 삶은 돼지고기 썰었지	鋸刀更割熟爓臠
유배생활 괴로움 몽땅 잊게 해주어서	使我渾忘遷謫苦
미친 듯 노래하며 취하고 또 취했었지.	狂歌亂舞醉更醉 (제257수)

겨울에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눈길을 뚫어 술과 안주를 들고 담정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담정의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국보, 담수, 전옹 세 사람은 모두 병영(兵營)에서 서기 일을 맡아하던 아전붙이였다. 담정은 신분이 다른 이런 인물들과 격의없이 지내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이외에도 담정과 친밀하게 지낸 술한 인물들이 「사유악부」에 등장하고 있다. 담정은 “부령사람 그리운 마음 덜 수가 없어/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아 늘 눈 앞에 어른”(30)이라거나 “작은 결점 큰 결점 따지지 않고/나와 서로 좋아하여 교류하였네”(31)라면서 그들과 나눈 우정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변방의 한미한 신분의 인물들이었지만 담정은 이들의 인품과 재능에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것을 여러 편의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 담정은 사람들이 영남을 추로지향(鄒魯之鄉), 즉 성인(聖人)의 고을이라 하고 관북을 말갈의 땅이라 폄시하지만, 자신이 보기엔 오히려 관북이 영남보다 낫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제200수)

담정은 자신과 우정을 나눈 인물들만이 아니라 변방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견문한 각양각색의 민중적 인물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호랑이를 쏘아 죽인 최포수(제26수), 여자의 몸으로 호랑이와 맞선 윤씨 열녀(제143수), 정절을 지켜 자결한 최씨 열녀(제145수),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홍생(제157수) 등 용맹과 기개, 의기가 드높은 북방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

(30) “我思北人憂難鏟，欲忘未忘長眼在”(「사유악부」 제255수).

(31) “寸短尺朽皆不棄，與我相好無相失”(「사유악부」 제255수).

며, 병법에 뛰어난 지덕해(제53수), 백발백중의 활솜씨에다 말타기에도 뛰어난 황대석(제56수), 칠순의 나이에 4척이나 되는 활과 들화살촉이 박힌 화살을 들고 나는 듯이 말달리는 이제할(제120수) 등 씩씩하고 무예에 뛰어난 변방의 남아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 최포수에 대한 회상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무얼 생각하나?

問汝何所思

저 북쪽 바닷가.

所思北海湄

작은 키의 최포수 날래고 용감해

短小精悍崔知毅

눈빛은 번쩍, 살췌기보다 날쌔지.

眼彩曾曾輕於豹

어려서부터 총쏘기 배워 그 기술 뛰어난데,

早年學砲砲法工

남산 속 오가며 곰사냥을 한다네

往來捕熊南山中

곰이 화를 내어 팔뚝을 물었지만

熊怒而搯嚼其臂

총부리를 그 입에 대고 쏘아 죽였네.

舉砲築口仍殺熊

지난 가을 계곡에서 이마 흰 호랑이 만났어도

前秋溪上白額虎

최포수 총 한 방에 그 뱃속을 꿰뚫었지.

知毅一砲貫虎肚

아아, 최포수는 참으로 신포(神砲)라네

嗟乎知毅眞神砲

수풀 사이 노루·사슴이야 쏘려고도 하지 않네.

肯射林間麕與麇 (제26수)

이 최포수의 형용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소외, 열악하고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굳세면서도 넉넉한 마음씨로 살아가는 북방민중의 삶의 자세를 떠올릴 수 있다. 담정은 최포수를 주인공으로 한 「최신포전(崔神砲傳)」, 용맹스런 한 병졸을 주인공으로 한 「차만웅전(車萬雄傳)」 등도 창작한 바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한편 담정의 「단량패사」 중에는 떠돌이 상인을 주인공으로 한 「가수재전(賈秀才傳)」, 거지를 주인공으로 한 「삭낭자전(索囊子傳)」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민중적 인물에 대한 담정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계급타파와 평등의식 담정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민중적 인물에 대한 애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세적 신분관념을 타파하고 평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담정의 평등의식이 가장 두드러게 표현된 작품은 「장원경

처 심씨를 위해 지은 시」이다. (32) 이 작품은 「사유악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사유악부」가 도달한 인간이해와 평등의 감수성을 이 작품은 더욱 심화하거나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미완의 서사시는 장파총이라는 인물이 백정의 딸인 심방주의 인간됨됨이에 탄복하여 그녀를 며느리로 삼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백정의 딸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라든지, 양반집안과 백정집안의 혼인을 제재로 한 데서 이미 이 작품이 계급적 틀을 벗어나 평등의 인간관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방주는 비록 백정의 딸로 태어났으나 더없이 아름답고 똑똑하며 빼어난 인품을 갖춘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시인은 아주 섬세하고도 애정어린 필치로 그녀의 외면과 내면을 묘사하면서 “앞태를 보니 관세음이요/뒤태를 보니 석가세존이라” (33)고 높이 칭찬하는가 하면, “지체의 귀하고 천함으로/사람의 현우(賢愚)를 단정하지 말라/진흙탕에서 연꽃은 피어나고/용은 개천에서 태어나는 것” (34)이라 하여 신분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장파총은 원래 명가의 자손이었으나 젊어서 온갖 간난신고를 겪고 스스로 막노동·생선장수 노릇을 하며 떠돌아다녔다. 그런 과정에서 민중과의 일체감을 획득하고 중세적 신분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만민평등의식을 갖게 된 문제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장파총이 백정의 집에 들러 하루밤을 묵으며, 신분차이 때문에 자리를 같이하기를 한사코 마다하는 백정을 설득하여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마침내 무릎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주인이 이 말 듣고	主人得聞之
머리 숙여 절하고 꿇어 앉더니	叩頭便拜跪
“한술밥이야 먹을 수도 있다지만	同鼎尙自可
같은 자리 앉는 건 죽을 죄 짓는거죠.	并坐罪當死

(32) 이 작품은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하)』(창작과비평사, 1992)에 「방주가」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설되어 있어 참조가 된다.

(33) “前瞻觀世音，後眺釋迦尊”(「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 제209·210구)

(34) “莫以地貴賤，看取人賢愚，菡萏發泥淖，虯螭產溝渠”(「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 제95-98구).

천지신명이 환히 내려보는데
하늘이 두려워 못할 일입죠.”
허허 웃으며 파총이 말하길,
“공손도 지나치면 예(禮)가 아니지요.
뜻 맞으면 모두 친구이고
정 깊으면 곧 형제이지요.
어찌 하늘의 뜻이
사람 사이에 계급을 나누는 것이겠소.”
주인이 이 말 듣고
마지못해 주춤주춤 섬돌을 올라
무릎 맞대고 정다이 앉으니
신분의 차이가 어찌 있으리.

神目電晃晃
那不畏天爾
把摠嘻嘻道
過恭殊非禮
義孚皆朋舊
情深卽兄弟
誰謂天公意
以茲限級陞
主人聞此言
黽勉遵階右
款曲促膝坐
等秩更何有⁽³⁵⁾

작품에서 종종 장파총의 시점과 시인의 시점은 구분되지 않는바, 시인은 장파총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새로운 인간관을 토로하고 있다. 장파총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는/고르고 가지런하여 치우침이 없는데/어찌다가 우리 인간 세상은/아비지옥(阿鼻地獄)처럼 되어 버렸나”⁽³⁶⁾라고 하여 계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이 세상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모두 동포(四海皆同胞)”⁽³⁷⁾임을 설파하고 있다. 곧 ‘사해동포주의’의 표방이다. 이 사해동포주의는 근대적 만민평등의식에 접근하는 것이며, 장파총은 근대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근대적 인물유형에 가깝다.

주지하듯 1860년 수운 최제우에 의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졌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만민평등의식은 일반화되었다. 그보다 앞서 한 시인이 도달한 이 진보적 인간이해는 자못 놀랍기만 하다. 우리 사상사와 문학사에서 중세적 신분관념의 타파는 담정의 문학을 통해서 비로소 뚜렷이 가시화(可視化)되었던 것이다.

담정의 평등의식은 유배체험을 통해 민중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민중과의

(35)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 제371-386구.

(36) “細繩化醇理，均齊元不贖，爭奈缺陷界，較似阿鼻獄”(「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 제425~428구)

(37)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 제265구.

일체감을 획득할 수 있었던 데서 연유한 것이라 여겨진다.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선취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담정의 문학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감하는 문학의 예언적 역할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4. 마무리

이상에서 우리는 담정의 생애와 그 문학적 특질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담정의 문학은 '정(情)'을 중시하고,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을 긍정하며, 감정의 해방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10여년의 유배생활을 통해 민중적 세계와 접하면서 그의 감수성은 민중적인 것으로 전화되었으며, 중세적 감수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감수성의 세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탈중심적·평등의 감수성에 입각하여 봉건권력의 부패를 신랄하고도 구체적으로 폭로하였고, 여성 및 민중적 인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통해 그들을 남성 및 지배층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이해하였으며, 중세적 신분관념을 넘어서서 근대적 만민평등의식에 성큼 다가서 있었다. 담정의 인간 및 현실 이해는 학문이나 논리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풍부한 감수성 및 직관적 통찰에 근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예술적 감성이나 시적 통찰은 때로 이성이나 논리보다 더 유연하며, 그리하여 인간 및 세계 이해에 있어 더 진취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담정의 경우를 통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담정은 때로 당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면모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민중적 삶과의 직접적 연관을 상실한 해배(解配) 이후로는 이전의 날카로운 감수성이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담정문학이 새로운 감수성에 입각하여 근대적 인간이해를 선취함으로써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예감한 점은 가치 독보적이며, 바로 여기에 담정문학의 사적(史的) 의의가 있다.

(필자: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고문헌

『담정유고(潭庭遺藁)』(계명문화사 영인본)

『조선왕조실록』(탐구당 영인본, 권47)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247. 248책(아세아문화사 영인본, 권25)

강명관, 「담정 김여 연구」, 『부산대 사대 논문집』 9집(부산대학교, 1984).

박준원, 「담정 김여 시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박준원, 「담정총서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박혜숙, 「사유악부연구」, 『고전문학연구』 6집(한국고전문학회, 1991).

이신복, 「담정 김여 한시연구」, 『동양학』 18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

연 보

1766년 김재칠(金載七)의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남.

1780년 성균관에 들어감.

1792년 성균관 진사시에 급제. 김조순(金祖淳)과 함께 「우초속지(虞初續志)」 편찬.

1796년 왕명으로 「의이두오언십운(擬李杜五言十韻)」 고시 각 1수를 지어 올림.

1797년 11월 강이천(姜彝天)의 비어옥사(蜚語獄事)에 연루되어 함경도 경원(慶源)에 유배되었으나 배소(配所)에 도착되기 전 왕명으로 다시 부령(富嶺)으로 이배(移配)되었음. 12월 부령에 도착. 「감담일기(坎窞日記)」 저술.

1799년 부친 김재칠 사망. 「정안전(貞雁傳)」을 지음. 이 글로 인해 김종원(金鍾遠)의 옥사가 일어남.

1801년 4월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다시 추국(推鞠)을 받고 진해로 유배됨. 진해유배 시기에 「사유악부(思牖樂府)」, 「우해이어보(牛海異魚

譜)」 지음.

1806년 8월 김여의 아들 김유악(金維岳)이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의 재심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바, 상소가 받아들여져 유배에서 풀려남. 유배에서 돌아온 후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공주(公州)에 가서 삼년 동안 복(服)을 입음.

1811년 여릉(廬陵)의 별장에서 서울 삼청동으로 이주함. 이 시기에 「만선와잉고(萬蟬窩膾羹)」 지음.

1812년 1817년 정릉참봉(靖陵參奉), 경기전령(慶基殿令) 등의 벼슬을 지냄.

1817년 10월 1819년 3월 연산현감(連山縣監)으로 재직. 「황성이곡(黃城俚曲)」, 「상원이곡(上元俚曲)」 지음

1821년 함양군수(咸陽郡守)로 재직 중 임지에서 사망.